

12-09 (통권 제 480호)

2012. 3. 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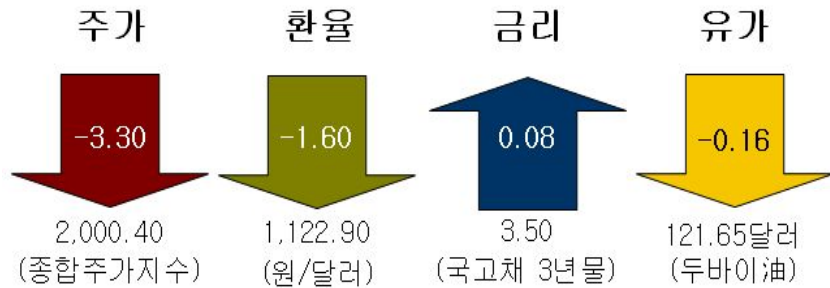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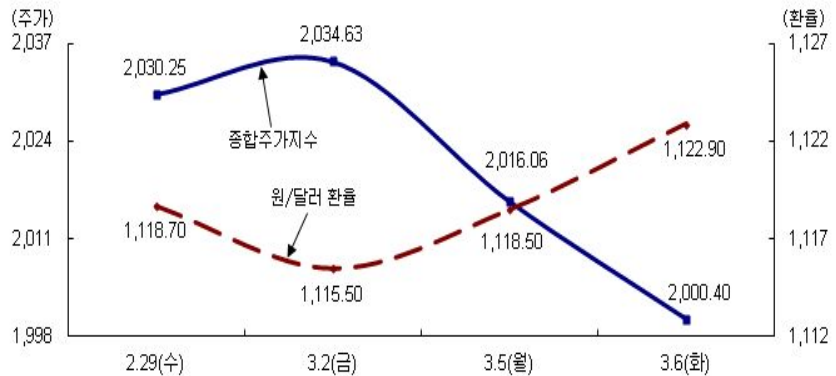
- 동일본대지진이 韓·日 경제에 미친 영향과 과제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29~3.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동일본대지진이 韓·日경제에 미친 영향과 과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부 형 연구 위 원 (2072-6306, leebuh@hri.co.kr)  
 정 민 선 임 연구 원 (2072-6220, chung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동일본대지진이 韓·日 경제에 미친 영향과 과제

#### ■ 동일본대지진으로 재침체된 일본 경제

한신(阪神)대지진의 약 3배 이상인 약 16~25조 엔의 피해를 가져온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1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3월에 걸쳐 약 14.5조 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재해복구비용으로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꾀했으나 일본 경제는 2011년에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예상된다.

#### ■ 동일본대지진이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

동일본대지진 이후 1년 동안 서플라이체인 복구가 가속화되는 등 재해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일본 동북지방 **깨현의 생산거점이 빠르게 복구되고 있다.** 지진이나 쓰나미에 의한 직접 피해를 받은 9개 생산거점 중 93%가 복구되었고, 이 가운데 80%가 재해 전 또는 이상의 생산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동일본대지진의 직·간접 영향에 의한 기업 도산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2년 2월 7일 현재 사업 정지 중이거나 파산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33개사로 올 상반기까지 동일본대지진 관련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건수나 규모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 증대 전력 부족 현상 지속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여전히 일본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먼저, 동일본대지진으로 서플라이체인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 상승과 자국 내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해외 투자 급증으로 일본 내 산업공동화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들의 해외생산 비중은 2010년 33.3%에서 2011년에 34.2%로 상승했다. 또, 해외직접투자도 2010년 대비 약 58%나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원전의 평균 이용률이 대폭 하락,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동일본대지진 후 후쿠시마 제 1원전 1~4호기 폐쇄 작업을 추진 중인 등 2012년 2월 10일 현재 전체 54기의 원전 가운데 2기만이 가동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원전 평균설비이용률이 10.3%까지 하락했다. **또, 재해복구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3월에 걸쳐 결친 추경과 2012년 당초 예산까지 모두 약 17.5조 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의 부채 규모도 2010년 180%에서 2012년에는 19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동북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폐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방사선 위험 우려로 해외 관광객 유입 규모가 급감했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일본 내 유입 외국인 관광객 수가 월간 6~7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급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1년에 전년대비 27.8% 감소했다.

## ■ 동일본대지진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한편, 그동안 한국경제는 對日무역수지 개선,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상승, 對日 직접투자 유입 증가, 대체 관광 유입증가, 한국형 원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대두 등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첫째, 동일본대지진 이후 對日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2011년 한국의 對日 수출 증가율은 2010년 29.4%보다 11.4%p 증가한 40.8%, 수입 증가율은 동 23.8%p 감소한 6.3%를 기록, 전년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약 75억 달러 감소했다. **둘째, 자동차나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11년에 생산이 전년 대비 12.7% 감소하고, 세계 생산 비중도 12.3%에서 10.4%로 낮아졌지만, 한국은 생산이 9.0% 증가하고 세계 시장 비중도 다소 상승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세계 DRAM 시장 점유율이 2011년 4/분기 67.6%까지 상승하였고, LCD 부문에서도 국내기업의 압도적인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일본 내 서플라이체인 붕괴와 전력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했다.** 2011년 1/4분기 이후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건수가 지속 증가, 전년보다 79건 증가한 500건을 기록했다. **넷째, 일본 방사능 유출 우려감에 따른 목적지 변경 수요의 일부를 한국이 흡수하는 등 訪韓외국인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도 개선되었다.** 일본 관광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訪韓외국인 증가세가 가속되면서, 2011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0년 대비 약 10만 명 증가한 약 980만 명에 달했다. **다섯째, 일본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 폐기 등 원자력 이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유가, 지구온난화 대응 등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재부각되면서 한국의 신형경수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 시사점

향후 일본은 원전피해를 제외하면 빠르게 복구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변화된 일본 기업들의 전략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일본 내 수시장 공략 가속화 등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향후에도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속화가 전망되는 등 **서플라이체인 대체 수요 및 투자 유입 촉진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또, 일본 내 자숙 분위기가 점차 약해지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관광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관광객들의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일본대지진 후 이슈화되었던 원전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한국형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1. 동일본대지진으로 재침체된 일본 경제

○ (일본 경제 재침체) 한신(阪神)대지진의 약 3배 이상의 피해를 가져온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1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 2만 5,174명에 이르는 사상자와 34만 1,411명의 피난민, 100만 채 이상의 건축물 피해<sup>1)</sup> 등을 낳은 동일본대지진은 금액으로 약 16조 엔~25조 엔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

### < 동일본대지진의 추정 피해 규모 >

구분	동일본대지진 (내각부 방재담당 추정)	동일본대지진 (내각부 경제재정분석 담당)		한신(阪神)대지진(국토청)
		CASE 1	CASE 2	
건축물 등	약 10조 4천억 엔	약 11조 엔	약 20조 엔	약 6조 3천억 엔
라이프라인 시설	약 1조 3천억 엔	약 1조 엔	약 1조 엔	약 6천억 엔
사회기반시설	약 2조 2천억 엔	약 2조 엔	약 2조 엔	약 2조 2천억 엔
기타	농림수산	약 2조 엔	약 2조 엔	약 5천억 엔
	기타			
총계	약 16조 9천억 엔	약 16조 엔	약 25조 엔	약 9조 6천억 엔

자료 : 日本 内閣府(2011.6.24), '東日本大震災における被害額の推計について'

주 1. 건축물 등에는 주택 및 택지, 점포와 사무소 및 공장, 기계 등이 포함되었으며, CASE 1에서는 건축물의 파손율을 쓰나미 피해지역은 한신대지진의 2배 정도, 이외의 피해지역은 한신과 동일한 정도로 추정하는 반면 CASE 2에서는 쓰나미 피해지역이 한신대지진의 2배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2. 라이프라인 시설에는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및 방송 시설을 말함.

3. 사회기반시설은 하천, 도로, 항만, 하수도, 공항 등이 포함됨.

- 한편, 일본 정부는 재해 조기 복구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

-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3차에 걸쳐 약 14.5조 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재해복구비용으로 투입

### < 동일본대지진 후 일본 정부의 재해복구 관련 추경 편성 규모 >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계
4조 153억 엔	1조 4,533억 엔	9조 95억 엔	14조 4,781억 엔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2차 추경예산의 지방교부세교부금은 피해 지방자치체에도 지급되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제4차 추경에는 동일본대지진복구관련경비가 없기 때문에 제외함.

1) 일본 내각부 긴급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인적 피해는 사망자 1만 5,846명, 행방불명 3,317명, 부상자는 6,011명이며, 건축물 전체가 전부 파괴된 것만 12만 8,558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日本 内閣府 緊急災害対策本部(2012.2.7), '平成23年(2011年)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東日本大震災)について'.

-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에 따르면 1~2차 추경에 의한 GDP 상승효과는 총 9조 엔으로 명목 기준 약 1.9%p(2010년 명목 GDP 479.2조 엔 대비)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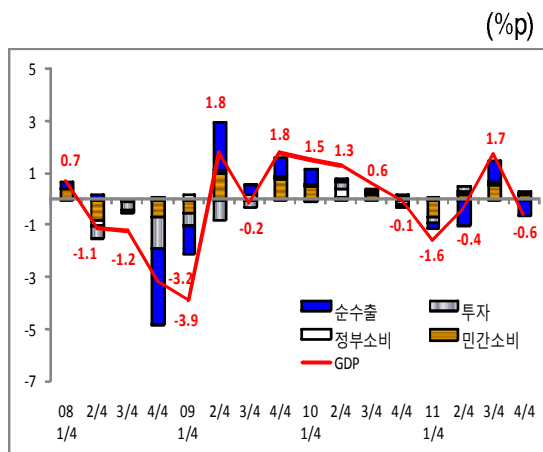
< 일본 정부의 2011년 1-3차 추경 효과 >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제3차 추경	합계
2.1조 엔	0.9조 엔	6.0조 엔	9조 엔

자료 : みずほ総合研究所(Feb. 2012), '東日本大震災からの公的復興需要', みずほリサー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3.1%로 회복세를 보였던 경제성장률이 2011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1/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6%로 크게 하락한 후 3/4분기에는 1.7%를 기록, 큰 회복세를 보였으나 4/4분기에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0.6%)
- 일본 정부는 2011년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타 민간 전망기관들은 -0.4~-0.5%로 일본 정부보다 다소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분기별 GDP 기여도 추이 >



자료 : 일본 내각부, 2012년 2월 속보치 기준.

< 일본 주요 기관들의 경제 전망 >

구분	2010년 (실적)	2011년 (%)
일본 정부	3.1	-0.1
미츠비시UFJ리서치 & 컨설팅, 미즈호총합연구소		-0.4
미츠비시총합연구소, 닛세이기초연구소 등 4개 기관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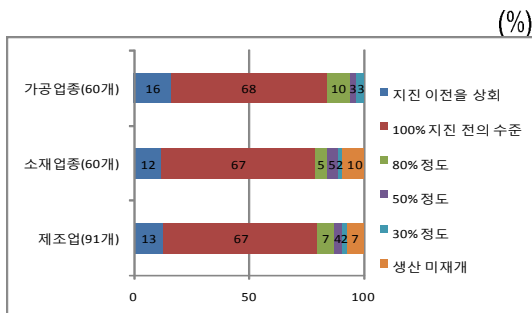
자료 : 각 기관 보도자료 종합.

2)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당해 년 4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의 재정연도를 기준으로 함. 한편, 연간(1~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4.4%, 2011년 -0.9%로 2011년에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日本 内閣府 経済社会総合研究所 国民経済計算部(2011.2), '四半期別GDP速報 時系列表 2011(平成23)年10-12月期(1次速報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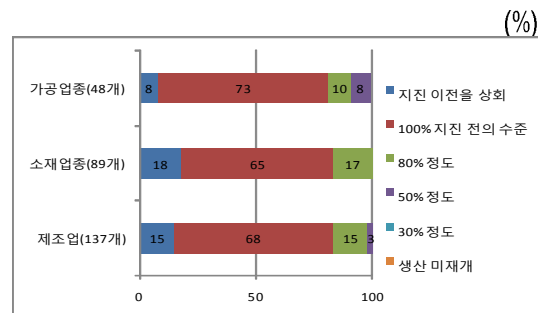
## 2. 동일본대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 (빠른 복구 속 리스크 요인 상존) 동일본대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는 서플라이체인 복구가 가속화되고 기업 도산이 일단락되고 있으나, 일본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속에 따르는 산업공동화 우려, 전력 부족 현상 심화,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평가
- (서플라이체인 복구 가속)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일본 동북지방 7개현의 생산거점이 빠르게 복구되어 재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임
  - 일본 경제산업성의 2012년 7월 기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북지방 7개현의 생산거점들의 생산수준이 2011년도에 이미 대부분 복구된 것으로 보임
    - 지진이나 쓰나미에 의한 직접 피해를 받은 91개 생산거점 가운데 93%가 복구되었으며, 이 가운데 80%가 재해 전 또는 이상의 생산수준을 보이고 있음
    - 동 조사 결과 직접적인 피해 지역 이외 지역의 137개 생산거점도 83%가 재해 전 또는 이상의 생산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지진 피해 지역 생산수준 회복 현황 >



< 지진 피해 이외 지역 생산수준 회복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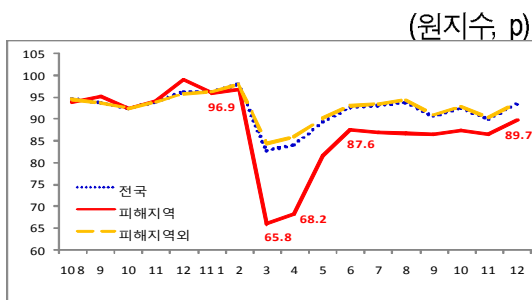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2011.8.1), '東日本大震災後の産業實體緊急調査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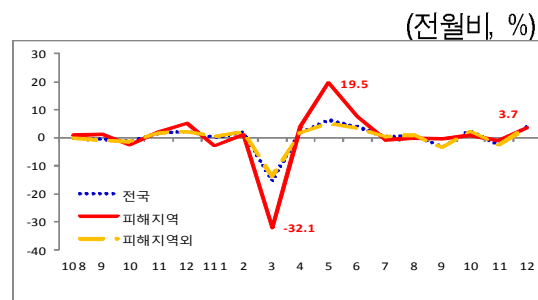
- 주 1. 조사대상지역은 일본 동북지역의 7개 현으로 青森, 岩手, 宮城, 福島, 茨城, 栃木, 千葉가 포함됨.
- 2. 각 업종별 개수는 응답 생산거점 수를 말하며, 수치는 응답률임.

- 일본의 지진 피해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지난 2011년 3월 65.8까지 급락했으나, 이후 12월에는 피해 전 수준의 90% 수준까지 회복되며 상승세

< 일본의 지역별 광공업생산지수 추이 >



< 일본의 지역별 광공업생산 증감률 추이 >



자료 : 日本 經濟産業省(2012.2.14), '震災に係る地域別鉱工業指数(12月分確報)の試算値について'.

○ (동일본대지진 관련 기업 도산 일단락) 동일본대지진의 직·간접 영향에 따르는 기업 도산 건수가 지난 2011년 8월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파산한 기업 건수는 2011년 3월~2012년 2월까지 총 592건, 부채총액 약 9,101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는 1995년 1월 발생한 한신대지진 발생 후 12개월 동안 지진 피해로 인한 도산 건수 144건의 4.1배에 해당
- 한편, 2012년 2월 7일 현재 사업정지 중이거나 파산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33개사로 올 상반기까지는 동일본대지진 관련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건수나 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동일본대지진 관련 기업 도산 추이 >

구분		직접		간접		합계	
		건수	부채총액	건수	부채총액	건수	부채총액
2011년	3월	1	12,250	7	4,416	8	16,666
	4월	3	878	23	11,873	26	12,751
	5월	8	3,106	57	33,896	65	37,002
	6월	4	1,744	74	32,409	78	34,153
	7월	7	869	63	39,617	70	40,486
	8월	1	433,083	74	48,459	75	481,542
	9월	5	947	55	22,116	60	23,063
	10월	3	345	44	15,246	47	15,591
	11월	2	202	46	28,095	48	28,297
	12월	6	1,474	60	53,076	66	54,550
2012년	1월	2	178	38	163,316	40	163,494
	2월	0	0	9	2,524	9	2,524
누계		42	455,076	550	455,043	592	910,119

자료 : 東京商工リサーチ(2012), '東日本大震災関連経営破綻(2月7日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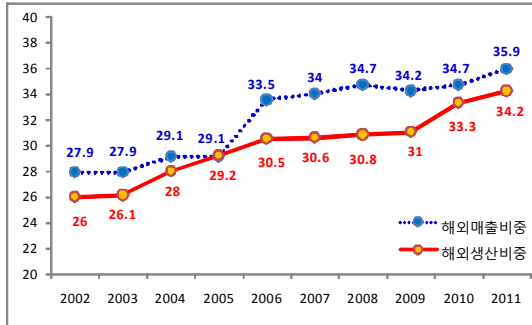
○ (기업 해외 진출 가속에 의한 산업공동화 우려 심화) 동일본대지진으로 서플라이체인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 상승, 자국 내 생산 리스크 회피 등을 위한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내 산업공동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들의 해외생산 비중은 2010년 33.3%에서 2011년에 34.2%로 상승

- 한편, 동일본대지진 후 일본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0년 10.4조 엔에서 약 58% 증가한 16.4조 엔
- 이로 인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수지도 2010년의 4.4조 엔 적자의 약 2배 규모인 8.4조 엔으로 크게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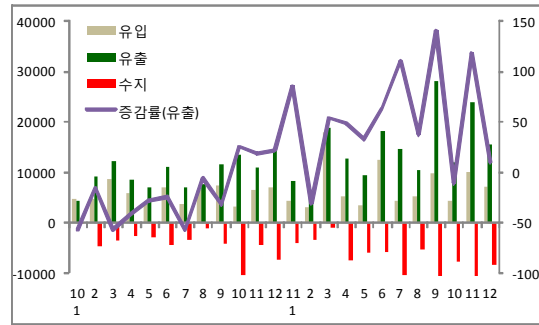


< 일본기업의 해외 생산 및 판매 비중 추이 >  
(%)



자료 : 日本國際協力銀行(2012.1), 'わが國製造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關する調査報告—2011年度海外直接投資アンケート調査結果(第23回)'.  
주 : 조사대상 603개사들은 모두 해외현지법인을 3개사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 중 적어도 1개사의 생산거점을 둔 일본제조업체들임.

< 일본의 FDI 유출입 및 수지 추이 >  
(억 엔 %)



자료 : 일본 재무성.  
주 : 2012년 10-12월 값은 속보치 기준임.

○ (전력 부족 현상 지속) 동일본대지진 후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 폐쇄 작업을 추진 중인 등 원전의 평균 이용률이 대폭 하락, 전력 부족 현상 심화 전망

- 동일본대지진 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일본의 원전은 대부분 가동 중단 상태로 2012년 상반기까지 전력 공급량이 최대전력수요에 미치지 못할 전망
- 2012년 2월 10일 현재 전체 54기의 원전 가운데 2기만이 가동 중이며, 지난 1월에는 원전 평균설비이용률이 10.3%까지 하락<sup>3)</sup>
- 9개 메이저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부족량은 2011년 하절기 총수요전력 1만 7,954kW의 2.7%인 483만 kW, 2011년 동절기 동 15,881kW의 0.7%인 113만 kW, 2012년 하절기 동 17,954kW의 9.2%인 1,656만 kW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한편, 원전 재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1년차 0.2%p, 2년차 0.6%p, 3년차 1.1%p씩 감소할 것으로 우려

< 일본 9개 전력회사 전력수급 전망 >  
(kW)

구분	2011년 하절기	2011년 동절기	2012년 하절기
공급예비율 (수요-공급)	483 (2.7%)	113 (0.7%)	1,656 (9.2%)
최대전력수요 (총수요)	17,954	15,811	17,954
공급력	17,471	15,698	16,297

자료 : 日本 內閣府 エネルギー·環境會議(2011.7.29), 当面のエネルギー需給安定策 : エネルギー構造改革の先行實施(案).

< 원전 정지의 영향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실질GDP 억 엔(%)	-826 (-0.2)	-2,987 (-0.6)	-6,182 (-1.1)
취업지수 만 명(%)	-2.6 (-0.0)	-9.6 (-0.2)	-19.8 (-0.3)
경상수지 (억 엔, %)	-49,171 (-30.9)	-53,363 (-33.5)	-51,243 (-32.2)
환율 엔/달러(%)	3.2 (-3.7)	3.4 (-4.0)	3.3 (-3.8)

자료 : 第一生命經濟研究所(2011.8.10), 原發停止のマクロ經濟的影響.  
주 : 환율은 변동 폭과 변화율을 나타냄.

3) 日本原子力産業協會(2012.2.20), '日本の原子力発電所の運転状況'.

○ (재정 건전성 악화)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추경과 2012년 당초 예산까지 모두 약 17.5조 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전 건전성이 악화

- 2010년 말 현재 862조 엔이었던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액이 2011년(전망)에는 903조 엔, 2012년에는 940조 엔으로 급증할 전망
-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액 비중은 2010년 180%에서 2012년에 196%로 16%p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지진복구 관련 예산 >

(억 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2012년도 예산안	계
40,153	14,533	90,095	36,500	181,282

자료 : 日本 内閣府 エネルギー・環境會議(2011.7.29), '当面のエネルギー需給安定策 : エネルギー構造改革の先行實施(案)'.

< 일본의 부채 규모 추이 >

(조 엔, 對 GDP 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공채규모	636 (133)	676 (144)	709 (148)
국가와 지방의 장기채무잔고	862 (180)	903 (192)	940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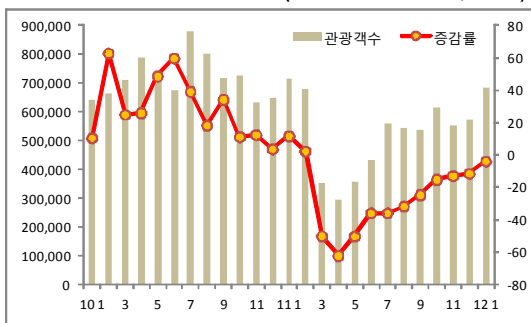
자료 : 日本 財務省(2011.12), 'わが國の財政事情(平成24年度予算政府案)'.

○ (해외 관광객 유입 급감)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동북지역의 주요 관광지 폐허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방사선 위험으로 해외 관광객 유입 규모 급감

-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일본 내 유입 외국인 관광객 수가 월간 6~7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급감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1년에 전년대비 27.8% 감소
- 더욱이 2010년 월평균 70만 명에 달하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동일본대지진 이후 동 50만 명 수준으로 급감

<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월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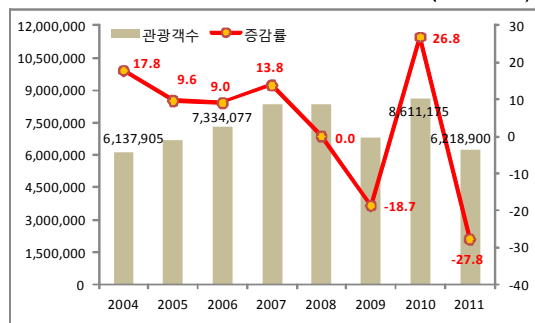
(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日本政府觀光局.

< 일본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추이 >

(단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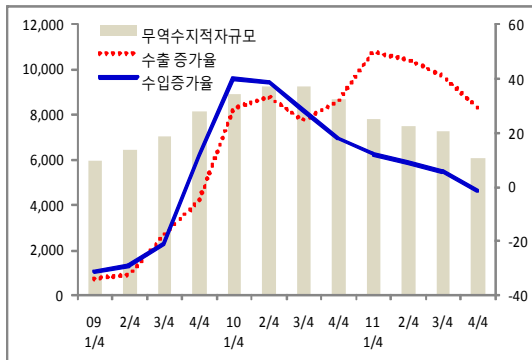


### 3. 동일본대지진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 (對日 무역수지 개선)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내 서플라이체인 붕괴 등에 의한 영향으로 對日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 2011년의 경우 對日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수입은 대폭 축소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
    -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49.5%를 기록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12.4%로 급감하였으며, 이후 4/4분기에는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 이로 인해 2011년 한국의 對日 수출 증가율은 2010년 29.4%보다 11.4%p 증가한 40.8%, 수입 증가율은 동 23.8%p 감소한 6.3%를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약 75억 달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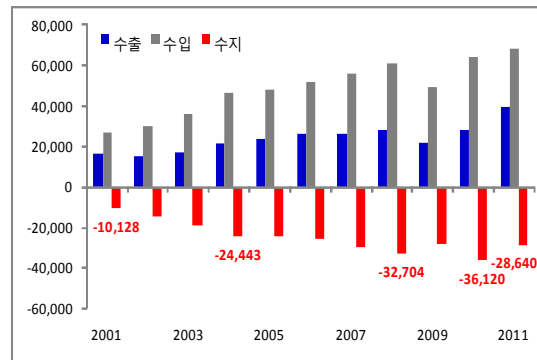
< 분기별 對日 무역 추이 >

(100만 달러, %)



< 연간 對日 무역 추이 >

(100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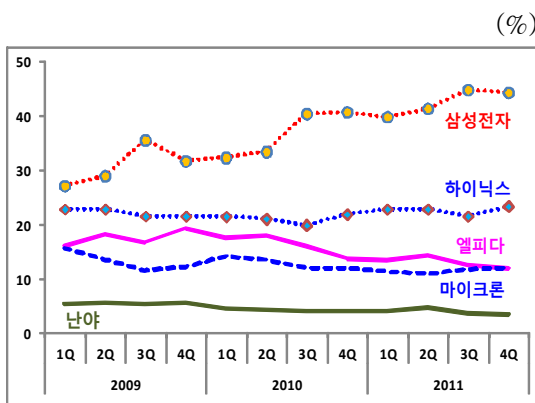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 (한국 기업의 상대적 경쟁력 유지 또는 상승)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지 또는 일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
  -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확고한 시장 지배력이 지속 유지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양사의 세계 DRAM 시장 점유율은 경쟁사인 엘피디(현재 파산보호신청 중)의 시장점유율 지속 하락, 2011년 4/4분기 67.6%까지 상승
    - 한편, NAND 부문은 2011년 1/4분기 35%에 달했던 일본 토시바사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4/4분기에 약 30%대로 하락한 반면, 하이닉스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동 기간 10.7%에서 13.7%로 큰 폭으로 상승

- 자동차도 일본은 지난 2011년에 생산이 전년 대비 12.7% 감소하고, 세계 생산 비중도 12.3%에서 10.4%로 작아졌는데 반해 한국은 생산이 동 9.0% 증가, 세계 시장 비중도 다소 상승
- 한편, LCD 부문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 샤프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0년 9.8%에서 2011년 7.4%로 큰 폭으로 하락4)

< DRAM 시장 점유율 추이 >



자료: IDC.

< 세계 자동차 생산 비중 및 점유율 추이 >

구분	2010년		2011년	
	비중	생산 증감율	비중	생산 증감율
중국	23.4	32.4	22.9	0.8
미국	9.9	35.1	10.7	11.7
일본	12.3	21.3	10.4	-12.7
독일	7.6	13.4	7.8	6.7
한국	5.5	21.6	5.8	9.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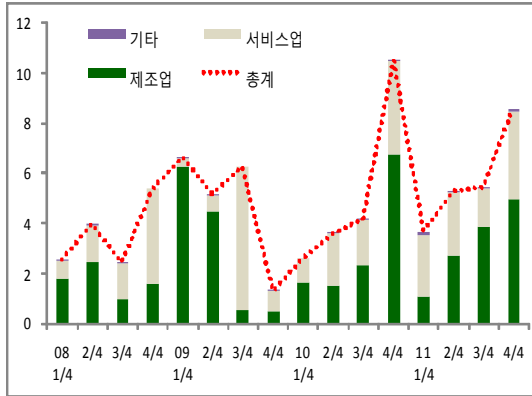
○ (對日 직접투자 유입 증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내 서플라인 체인 붕괴와 전력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증가

-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일본 기업의 對 한국 직접투자가 급증
  - 2011년 1/4분기 이후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79건 증가한 500건을 기록
  - 이처럼 직접투자 건수가 급증하면서 직접투자 규모도 2010년 20.8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22.9억 달러로 약 10% 증가
  - 산업별로는 2011년 들어 서비스업의 직접투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약 12.7억 달러로 서비스업 약 10억 달러에 비해 2.7억 달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2011년 LCD 세계 시장점유율은 각각 27.6%, 26.2%로 각각 세계 1, 2위를 차지. 이상 디스플레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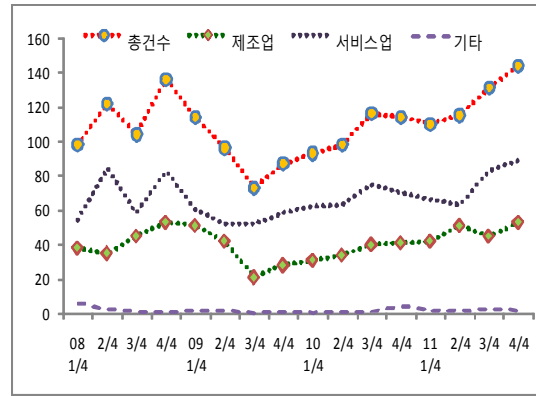
<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추이 >

(신고기준, 억 달러)



<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건수 추이 >

(신고기준,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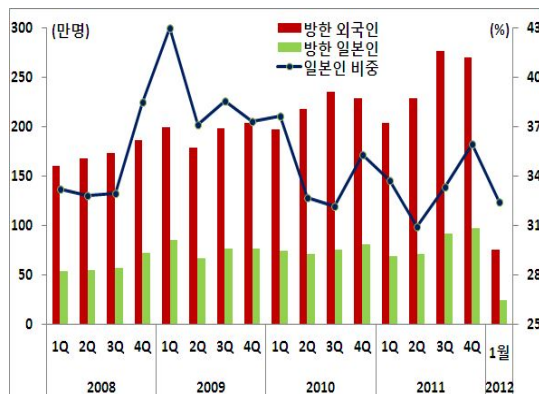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 (대체 관광 유입 증가) 일본 방사능 유출 우려감에 따른 목적지 변경 수요의 일부를 한국이 흡수하면서 訪韓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도 개선

- 일본 관광 대체 수요 증가 등으로 訪韓 외국인 증가 하면서 2011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980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00만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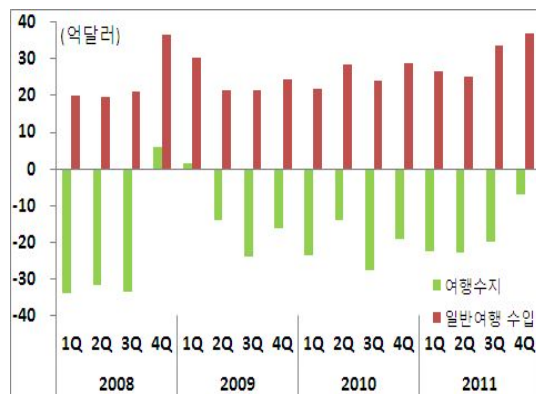
- 訪韓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8%, 2/4분기에 5.3% 증가한데 이어 3/4분기와 4/4분기에는 각각 동 17.5%, 18.0%로 급증
- 2011년 1/4~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訪韓 일본인 관광객이 지속 분위기 악화와 엔고에 따른 구매력 상승, 한류 붐 등으로 3/4~4/4분기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이에 따라 일반여행 수입은 2011년 3/4분기와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39.0%, 28.3%씩 증가하였으며, 여행수지 적자도 2010년 84.2억 달러에서 2011년에 약 71.6억 달러로 축소

< 訪韓 외국인과 일본인 추이 >



자료: 한국관광공사.

< 일반여행 수입과 여행수지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한국형 원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발견) 일본의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 폐기 등 원자력 이용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고유가, 지구온난화 대응 등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재부각되면서 한국의 신형경수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화석연료 고갈 우려, 고유가,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원전의 필요성이 재부각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발전 능력은 적게는 2010년의 약 1.3배, 많게는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최근 미국은 34년 만에 자국 내 원전 건설을 승인한 바 있고, 중국도 신규 원전 심사 및 착공을 재개한 상황인 등 세계 각국에서 2011년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75기, 계획 중인 원전은 91기에 이룸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원전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는 상황
  - 한국의 신형경수로(APR 1400)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전력기술의 원전 설계 역량뿐 아니라 국내 건설사 등은 원전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경쟁력을 보유
- 한국의 신형경수로에 대한 수요는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 지난 2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방문 시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가 흑해 연안 시노프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해달라고 공식 요청
  - 터키뿐 아니라 이집트, 베트남 등도 최근 한국의 신형경수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세계 원자력 발전 능력 전망 >

(GWe)

구분	2010년	2030년	
		최저	최고
북미	113.8	111	149
라틴아메리카	4.1	9	18
서유럽	122.9	83	141
동유럽	47.4	82	108
아프리카	1.8	5	16
중동 & 남아시아	4.6	30	53
동아시아 & 태평양	-	0	6
극동	80.6	180	255
세계	375.3	501	746

자료 : IAEA(2011),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 주요국 원전 운영 및 건설 추이 >

(基)

구분	운영중	건설중	계획중	계
미국	104	1	8	113
프랑스	58	1	0	59
일본	54	4	11	69
러시아	28	11	13	52
독일	17	0	0	17
한국	20	6	2	28
중국	13	30	23	66
인도	19	8	4	31
세계	436	75	91	602

자료 : 日本原子力産業協會.  
주 : 통계는 2011년 1월 기준임.

#### 4. 시사점

- (일본 기업 경쟁력 회복 대응 전략 마련)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서플라이체인 복구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업 도산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등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 동일본대지진으로 약화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물론 일본 내수 시장 공략 기회 또한 그만큼 축소될 것으로 우려됨
  - 국내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동시에 일본 내수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등의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지금 글로벌 시장 트렌드 변화에 맞는 상품 및 기술 개발은 물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함
    - 한편, 일본 현지 마케팅 강화,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촉진, 한류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일본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할 것임
- (서플라이체인 대체 수요 및 직접투자 유입 촉진) 동일본대지진 1년이 경과되었지만 향후에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플라이체인 대체 수요 유입 및 투자 촉진 전략 마련이 시급
  -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42%가 복구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외의 대체 조달처로부터 조달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향후 서플라이체인 대체 수요가 지속될 전망<sup>5)</sup>

5) 日本 經濟産業省(2011.8.1), '東日本震災後の産業実體緊急調査2'.

- 한편, 일본 제조업체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중국 등 동아시아국들에 비해 떨어지는 등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함
  - 일본 제조업체들의 경우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순으로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대만에 이어 투자 선호도 11위에 그쳤을 뿐 아니라 2010년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하락<sup>6)</sup>
  
- (일본 관광객 유입 가속을 위한 환경 정비) 일본 내 자숙 분위기가 점차 약해지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관광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관광객들의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
  
- 외국인 대상 상질서 개선, 일본인 대상 관광 가이드 등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포함한 일본인 관광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일본 현지에 적극 홍보하는 등 안심하고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본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시켜야 함
  
- (한국형 원전의 수출 산업화 가속) 동일본대지진 후 이슈화되었던 원전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한국형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연구위원(2072-6306, leebuh@hri.co.kr),  
정민 선임연구원(2072-6220, chungm@hri.co.kr)

6) 일본 國際協力銀行(2012.1), ‘わが国製造業企業の海外事業展開に関する調査報告’.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2.8	1.8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5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1.7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2월 28일	3월 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94	1.95	0.01%p
	엔/달러	81.19	80.66	77.66	80.51	81.53	1.02¥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400	1.3214	-0.0186\$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005	12,759	-246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723	9,638	-8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42	3.50	0.08%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24.5	1,122.9	-1.6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2,003.7	2,000.4	-3.3p

주: 3월 1일 국내지표는 전일(2월29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2월 28일	3월 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106.62	104.78	-1.84\$
	Dubai	88.80	106.75	104.89	121.81	121.65	-0.16\$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23.12	314.45	-8.6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2	4.2	3.4	3.5	3.4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